

목록

20240912_제15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_2024 교토선언.....	1
20240912_2025-2026 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협력각서.....	7

제15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2024 교토선언

2024년 9월 12일, 제15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용호성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장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부부장,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대신(이하 '3자')이 참석했다.

3자는 2024년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3국이 협력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문화교류·협력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3자는 기타큐슈 선언, 취푸 행동계획, 전주 선언이 3국 간 문화교류·협력 심화, 동아시아 지역의 우호친선과 평화와 안정, 문화예술의 해외 파급·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역대 문화장관회의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3자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문화예술이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성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형성하는 원천임에 공감했다. 동시에, 문화예술은 경제 성장과 혁신 창출의 원동력이며 저출생 고령화, 지역 활성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3자는 문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상의 인식을 바탕으로 3자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국 간 상호 연계와 미래지향적 문화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1. 문화교류·협력의 심화와 우호·연대 강화 -미래세대 교류 및 기관 간 교류 촉진-

- (1) 3자는 3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강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3국 문화예술 활동가 및 시민 간

문화 교류·협력, 특히 미래 세대 간 문화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3자는 2024년 5월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을 토대로 문화가 3국의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2025-2026년 3국 문화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교류·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2) 3자는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예술교육포럼' 등 주요 문화교류·협력 사업이 3국의 상호 이해 증진, 문화예술 발전, 문화예술교육 내실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자는 문화교류·협력 사업 실시에 있어 미래 세대의 참여 및 교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3) 3자는 박물관, 미술관, 극장, 도서관 등 문화예술기관 간 긴밀한 연계가 3국의 문화교류·협력을 뒷받침하고 3국 간 우호·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또한, 3자는 3국 문화예술기관 간 전시회 및 공연 개최, 예술가 등 전문가 및 실무자 간 교류·협력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동아시아 지역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2.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협력 강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1) 3자는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한국의 안성시, 중국의 마카오 특별행정구, 후저우시, 일본의 가마쿠라시를 를 선정했다. 3자는 2024년에 '동아시아문화도시'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10년동안 '동아시아문화도시'가 3국의 문화교류·협력사업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서 상호 이해 증진, 우호친선관계 강화,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발전 및 브랜드 파워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인정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내실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2) 3자는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들의 교류를 장려함과 동시에 각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문화적·역사적 특색을 알리고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3자는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예술가들의 교류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세대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3) 3자는 동아시아지역의 매력을 세계로 발산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아시아문화도시'와 '유럽 문화수도', 'ASEAN 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세계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 (4) 3자는 '동아시아문화도시'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3자는 3국의 미래 세대 예술가 등 미래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로고를 제작하는 활동을 추진할 것을 재합의하였다.

3.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문화의 중요성 -문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기여-

- (1) 3자는 문화가 모든 분야의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자는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자연재해, 지역 활성화, 웰빙 향상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문화가치 향상을 위해 문화를 통한 제반 과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기로 했다.
- (2) 3자는 문화다양성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며, 기후변화·자연재해·감염병·분쟁 등 국제적인 위기 대응에도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3자는 3국의 문화 교류·협력에 있어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3) 3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를 통한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보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3자는 장애 유무를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연령 등에 의해 문화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국 활동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연계하고, 문화를 통한 공생사회 실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4. 문화유산 분야 보호 및 협력 강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 (1) 3자는 기후변화, 자연재해로부터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3국이 연계·협력하고, 전문가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 (2) 3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재 양성 등 교류·협력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3자는 자국에 설립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5. 문화분야 디지털전환 및 창작활동 지원 -창작자, 문화 산업의 발전 강화-

- (1) 3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에 따라 창작자·예술가의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이 각국의 새로운 성장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창작자·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 창작자·예술가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들의 효과적인 방안과 정보 공유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3자는 문화예술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전례 없는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디지털화에 관한 정보 공유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2) 3자는 문화산업이 각국의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3자는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을 통해 3국 간 문화산업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3) 3자는 창작자·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관련,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품 콘텐츠 유통 촉진, 권리침해·불법복제물의 단속, 저작권 보호 의식 향상을 위한 협력·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 매력 향상 -문화관광 촉진과 스포츠 대회와의 연계-

- (1) 3자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이 문화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또한 이를 창조·발전·계승하고 도모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이에 3자는 관광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 개발과 매력적인 문화관광 지역 만들기에 관한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와의 연계를 위한 3자의 노력을 평가했다.
- (2) 3자는 3국에서 개최된 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문화활동과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경험과 정신을 계승하기로 하였다. 이에 3자는 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계기로 3국 간 문화교류를 내실화하고, 동아시아 지역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연계·협력하기로 했다.

7. 기타

- (1) 3자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3국의 문화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고 사무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지지하기로 했다.
- (2) 3자는 제16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2025년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3) 본 선언문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정본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부부장

일본국
문부과학대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국 문부과학성-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간
2025-2026 문화교류의 해에 관한 협력각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국 문부과학성,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이하 "3자"라 한다)는

3국 협력 2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2024년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가 미래 지향적인 실무 협력 추진에 관하여 견해를 같이한 전향적 비전을 인정하며,

문화·예술·문화콘텐츠산업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3국 정상은 2025년과 2026년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 결정에 따라,

문화가 3국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지속적이며 전략적이고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해 3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심화시키고자 열망하며,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협력 추진을 희망하며,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관련 세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제1항 범위와 목적

1. 본 협력각서는 2025-2026년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간 문화교류의 해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한다.
2. 본 협력각서의 목적은 문화 및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3국 간 유대 강화, 예술, 문화 그리고 기타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대화 촉진에 있다.
3. 본 협력각서는 상호 신뢰, 존경, 평등,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된다.

제2항 협력 분야

(1) 3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 (a)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및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관 간 교류
- (b) 시청각 콘텐츠, 음악, 도서 등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 (c) 동아시아 문화도시, 그리고
- (d) 3자가 동의한 기타 협력 분야

(2) 모든 협력 분야에 걸쳐 미래세대 간 교류를 통한 우호와 우정 축진을 중시한다.

제3항 협력 형태

본 협력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3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다자간 포럼, 비대면 회의, 전화 통화, 전자 메일 교환, 협의 등을 통하여 협력을 증진한다.

제4항 비용

3자가 공동으로 서면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3자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정에서 유발된 비용을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단,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5항 이견의 해결

본 협력각서를 해석 또는 이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3자 간의 직접 협의 및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

제6항 지위

본 협력각서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협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항 최종규정

1. 본 협력각서는 3자의 최종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2. 본 협력각서는 3자의 공동 서면 동의 하에 개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3. 본 협력각서의 종료는 3자가 공동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사업 또는 협력 활동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4년 9월 12일 교토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정본에 서명하였으며, 모든 문서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해석에 따른 차이 발생 시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일본국
문부과학대신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 부부장

